

-(으)ㄴ지라

~한지라 — ~이므로, ~인 까닭에

격식 있고 약간 예스러운 말투로 이유를 나타냅니다. 한국어 문어에서는 일부러 찾지 않아도 접할 만큼 흔히 쓰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품사	형태	예
형용사	-(으)ㄴ지라	바쁘다 → 바쁜지라
동사	-는지라	모르다 → 모르는지라
과거	-았/었는지라	늦었다 → 늦었는지라
르로 끝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드느니라
맞춤법	붙여 씀 — 하나의 어미	바쁜지라
가까운 표현	-(으)ㄴ/는 터라	바쁜 터라

■ 언제 쓰나요

형용사는 -(으)ㄴ지라, 동사는 -는지라, 과거형은 -았/었는지라를 씁니다. 르로 끝나는 어간은 ㄹ이 탈락하며, 전체를 붙여 씁니다.

이 표현은 이유: 워낙 바쁜지라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.

를 나타냅니다. 어조는 설명하는 듯하며 약간 미안해하는

-(으)ㄴ/는 터라와 매우 비슷합니다. 터라는 이미 있는 상황에 기대고, 지라는 좀 더 순수하게 원인을 나타냅니다. 대개 어느 쪽이든 어울립니다.

■ 예문

- 1 워낙 바쁜지라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.
- 2 사정을 잘 모르는지라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.
- 3 이미 늦었는지라 서둘러 봐야 소용없었다.
- 4 처음 있는 일인지라 모두가 당황했다.
- 5 부품을 직접 만드느니라 시간이 걸립니다.
- 6 워낙 조용한 성격인지라 눈에 띄지 않았다.

■ 비교

-(으)ㄴ/는 터라

매우 비슷하며 대개 바꿔 쓸 수 있습니다. 터라는 이미 놓인 처지에 기대고, 지라는 좀 더 순수한 이유입니다.

바쁜 터라 못 갔다. / 바쁜지라 못 갔다.

-(으)므로

모르는 표준적인 격식체 이유 표현으로 어조가 중립적이고, 지라는 더 따뜻하며 미안해하는 느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
바쁘므로 참석하지 못합니다. (안내문) / 바쁜지라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. (해명)

-(으)때

둘 다 오래된 이유 표현 어미입니다. 때는 고어적이어서 주로 경전이나 시에 나오고, 지라는 지금도 일반적인 격식체 글에 쓰입니다.

뜻이 있으매 길이 열린다. (고어체) / 바쁜지라 못 갔습니다. (현대 격식체)

■ 주의

✗ 부품을 직접 만드느니라 시간이 걸립니다.

○ 부품을 직접 만드느니라 시간이 걸립니다.

르로 끝나는 어간은 관형사형 체계 전반에서와 마찬가지로 -는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

✗ 워낙 바쁜 지라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.

○ 워낙 바쁜지라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.

-(으)ㄴ지라는 하나의 어미이므로 붙여 씁니다.

✗ 사정을 잘 모른지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.

○ 사정을 잘 모르는지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.

모르다는 동사이므로 -는지라를 씁니다. -(으)ㄴ지라는 형용사에 씁니다.